

남께,

월 일(주일) 부 예배 시간에 단기 봉사 선교를 다녀오신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간증하실 때에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 시간은 9분~12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3. 간증문을 적어 예행 연습을 하여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일 통역을 위해 늦어도 금요일까지 이영남 목사 이메일(yungniee@yahoo.com)로 보내주십시오.
4. 간증 후 문기부 참빛팀에게 간증문 수집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신 소개는 간단히 하시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간증자로 채택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참고하셔서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한 마디로 내 삶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은 큰 사건을 얘기할 때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잔잔한 얘기들을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의 삶, 은혜를 받은 내용, 그리고 은혜 받은 후의 변화입니다. 첫 부분, 은혜받기 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당시의 상태를 묘사하는 실례를 든다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 즉 은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공부의 간증이라면 그냥 좋았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목장 간증이라면 어떻게 목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할 부분은 반드시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 공부 간증에 와서 인생간증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후를 얘기할 때는 은혜받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을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새로운 결심으로 끝내면 더 좋습니다. 간증은 대부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늘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불안한 삶을 살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징크스가 무서워서 컵을 깬 날은 바깥출입을 못했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삶공부 중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안내 된 간증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방법은 종이에 적어서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후 예행연습을 해 보고 시간이 넘으면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 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고를 완전히 외워서 하지 못할 바에는 나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써 와서는 읽지 않고 얘기처럼 하려고 하면 길이는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수관 목사 드림

**남께,**

침례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공표 하는 것입니다. 배정된 수요일에 간증하실 때에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 받은 분들은 목장에서 침례 소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1. 앞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 **시간은 7분~10분으로 하되 10분이 절대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간증문은 반드시 적으셔서 예행연습을 해 보시고, 간증 후 문기부 참빛팀에게 간증문 수집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신 소개는 간단히 하시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 예수님 영접한 후 달라진 점 등을 말해주십시오.

다음은 참고하셔서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한 마디로 내 삶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은 큰 사건을 얘기할 때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잔잔한 얘기들을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의 삶, 은혜를 받은 내용, 그리고 은혜 받은 후의 변화 입니다. 첫 부분, 은혜받기 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당시의 상태를 묘사하는 실례를 든다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 즉 은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공부의 간증'이라면 그냥 '좋았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목장 간증이라면 어떻게 목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 공부 간증'에 와서 '인생간증'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후를 얘기할 때는 은혜받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을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새로운 결심으로 끝내면 더 좋습니다. 간증은 대부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늘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불안한 삶을 살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징크스가 무서워서 겁을 췌 날은 바깥출입을 못했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삶공부' 중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안내 된 간증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방법은 종이에 적어서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후 예행연습을 해 보고 시간이 넘으면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 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고를 완전히 외워서 하지 못할 바에는 나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써 와서는 읽지 않고 얘기처럼 하려고 하면 길이는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수관 목사 드림

**남께,**

목자 안수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월 일(주일) 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간증하실 때에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 이수관 목사님 편지를 상고하여 간증문을 적으십시오. 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2. 이 내용 중 목자는 5~6분, 목녀(목부)는 3~4분 말할 정도를 추려 주십시오.  
추린 간증문을 갖고 예행연습을 하여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 통역을 위해 늦어도 금요일까지 이영남 목자 이메일(yungnlee@yahoo.com)로 보내주십시오.
3. 추리지 않은 원래 간증문을 최신 가족사진과 함께 이수관 목사님에게 우송해 주십시오.  
(sookwan.lee@gmail.com). 이 목사님이 사진과 간증문을 교회 나눔터에 올려서 두 분을 소개합니다.
4. 간증을 할 때에는 인사말은 간단히 하시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5. 간증 후 문기부 참빛팀에게 간증문 수집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자로 채택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셔서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한 마디로 내 삶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은 큰 사건을 얘기할 때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잔잔한 얘기들을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의 삶, 은혜를 받은 내용, 그리고 은혜 받은 후의 변화 입니다. 첫 부분, 은혜받기 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당시의 상태를 묘사하는 실례를 든다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 즉 은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공부의 간증이라면 그냥 좋았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목장 간증이라면 어떻게 목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할 부분은 반드시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 공부 간증에 와서 인생간증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후를 얘기할 때는 은혜받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을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새로운 결심으로 끝내면 더 좋습니다. 간증은 대부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늘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불안한 삶을 살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징크스가 무서워서 겁을 췌 날은 바깥출입을 못했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삶공부 중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안내 된 간증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방법은 종이에 적어서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후 예행연습을 해 보고 시간이 넘으면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 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고를 완전히 외워서 하지 못할 바에는 나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써 와서는 읽지 않고 얘기처럼 하려고 하면 길이는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수관 목사 드림

**남께,**

대행 목사 임명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월 일(주일) 부 예배** 시간에 대행 목자와 목녀가 임명 소감 발표를 한 후에 선서를 합니다. 간증을 준비할 때에 아래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 이수관 목사님 편지를 상고하여 간증문을 적으십시오. 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2. 이 내용 중 목자는 5~6분, 목녀(목부)는 3~4분 말할 정도를 추려 주십시오. 추린 간증문을 갖고 예행연습을 하여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3. 추리지 않은 원래 간증문을 최신 가족사진과 함께 이수관 목사님에게 우송해 주십시오. (sookwan.lee@gmail.com) 이 목사님이 사진과 간증문을 교회 나눔터에 올려서 두 분을 소개합니다.
4. 간증을 할 때에는 인사말은 간단히 하시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5. 간증 후 문기부 참빛팀에게 간증문 수집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참고하셔서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한 마디로 내 삶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은 큰 사건을 얘기할 때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잔잔한 얘기들을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의 삶, 은혜를 받은 내용, 그리고 은혜 받은 후의 변화입니다. 첫 부분, 은혜받기 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당시의 상태를 묘사하는 실례를 든다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 즉 은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공부**의 간증이라면 그냥 좋았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목장** 간증이라면 어떻게 목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 공부** 간증에 와서 **인생간증**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후를 얘기할 때는 은혜받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을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새로운 결심으로 끝내면 더 좋습니다. 간증은 대부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늘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불안한 삶을 살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징크스가 무서워서 겁을 췌 날은 바깥출입을 못했었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삶공부** 중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안내 된 간증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방법은 종이에 적어서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후 예행연습을 해 보고 시간이 넘으면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고를 완전히 외워서 하지 못할 바에는 나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써 와서는 읽지 않고 얘기처럼 하려고 하면 길이는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수관 목사 드림

남께,

의 삶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월 일(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간증하실 때에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 시간은 9분~12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길어지면 교인들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3. 간증문을 적어 예행 연습을 하여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일 통역을 위해 늦어도 금요일까지 이영남 목사 이메일(yungnee@yahoo.com)로 보내주십시오.
4. 간증 후 문기부 참빛팀에게 간증문 수집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배경 설명은 너무 길게 마시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등의 일반적인 얘기를 말고 어떻게 좋고, 도움이 되었는지 예를 들든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간증자로 채택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참고하셔서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한 마디로 내 삶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은 큰 사건을 얘기할 때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잔잔한 얘기들을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의 삶, 은혜를 받은 내용, 그리고 은혜 받은 후의 변화입니다. 첫 부분, 은혜받기 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당시의 상태를 묘사하는 실례를 든다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 즉 은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공부의 간증이라면 그냥 좋았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목장 간증이라면 어떻게 목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할 부분은 반드시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삶 공부 간증에 와서 인생간증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후를 얘기할 때는 은혜받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을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새로운 결심으로 끝내면 더 좋습니다. 간증은 대부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늘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불안한 삶을 살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징크스가 무서워서 겁을 썩 날은 바깥출입을 못했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삶공부 중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안내 된 간증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방법은 종이에 적어서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후 예행연습을 해 보고 시간이 넘으면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 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고를 완전히 외워서 하지 못할 바에는 나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써 와서는 읽지 않고 얘기처럼 하려고 하면 길이는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수관 목사 드림